

## 石油사업기금 납부시기 통관이후 61일로 연장

동력자원부는 지난 9월 22일 석유사업기금 납부시기를 종전의 원유 통관일로부터 61일 연장, 이를 고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지난 2월과 3월 원유통관시점에서의 국내油價 조기인하에 따른 정유회사들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외국적선박과 항공기에만 석유사업기금을 환급해 주던 기금환급대상에 내국적 외항선과 외항기를 추가시켰다.

이번 기금환급대상확대조치로 그동안 외국적 항공기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던 내국적 외항기 및 외항선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 ◇ 石油事業基金 징수연기

국제원유가격하락에 따른 국내油價 및 基金의 조정은 原油가 도입·정제되어 휘발유, 輕油, B-C油 등 석유제품이 판매되어 판매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종전의 국내油價 및 기금조정은 통관기준으로 이루어져 국내정유업계는 올해들어 모두 7천3백억원의 자금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석유사업기금중 징수기한이 연기되는 금액은 국제원유가격하락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이 증액된 부분만 해당되며, 原油 및 일반석유제품의 경우, 석유사업기금징수액에서 배럴당 1.92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LPG는 톤당 50달러를 제외한 금액).

석유사업기금 징수연기혜택대상은 정유사 뿐만 아니라, 모든 원유 및 석유제품수입업자가 해당되며, 별도의 담보제공이 요구된다. 이번 기금징수연기조치에 따라 국내정유업계는 약 1천 9백억원 내외의 자금상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內國籍 외항기·외항선 기금환급대상 추가

석유사업기금이나 관세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대외경쟁대상이 되는 부문에 대하여 통관시 징수한 정부부문비용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적 선박이나 항공기에 급유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기금환급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와 경쟁상태에 놓여있는 내국적 외항선·외항기에 급유되는 석유제품도 이번 조치로 기금환급대상에 추가되었다. 내국적 외항선·외항기에 대한 기금환급은 내국적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석유제품공급가격을 인하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된다.

### 8월 原油도입단가 8.84달러 올들어 최저수준 기록

지난 8월중 국내원유도입 평균 단가는 배럴당 8달러 84센트로 올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8월중 국내원유도입 평균단가는 7월의 배럴당 10달러 5센트보다 1달러21센트 떨어졌는데, 이는 국제원유가격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중 계약물량이 8월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8월중 도입단가 8달러 84센트는 작년평균도입단가 26달러 67센트의 33% 수준이다.

### 국내油價 더 안내려

추가인하분 관세·基金 흡수

정부와 民正黨은 앞으로 국제원유가격하락에 따른 추가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유가를 더 이상 내리지 않기로 했다.

丁時采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民正黨의원총회에서 새해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간의 차액 가운데 3분의1은 관세로 국고에 흡수하고,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에 적립, 국내산업합리화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소비 올들어 9.9% 증가 8월중 16.2% 늘어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 국내나프타공급가격 상향조정 工場度 9.47%… / 당 85원87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을 9.47% 인상,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9월의 /당 78원44전에서 85원87전으로 7원43전이 오르고, 稅포함가격기준으로는 9월의 /당 86원28전에서 94원46전으로 8원18전이 올랐다.

지난 9월중 국제나프타평균가격은 日本 C & F(운임포함조건) 가격으로 톤당 1백37달러58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8월의 1백25달러23센트보다 12달러35센트가 오른 것이다.

현재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 매달 日本 C & F 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 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 원 / ℥ · \$ / t)

	국내가격(稅포함)	조정 (%)	국제평균가격(日本C&F기준)
1985. 11	171.14	0.15	252.65
	175.46	2.53	242.56
1986. 1	168.42	▲ 4.01	210.50
	146.10	▲ 13.25	149.91
3	103.58	▲ 29.11	102.34
4	70.54	▲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 11.24	94.40
8	65.21	▲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

8월까지의 총에너지소비량은 石油 환산 3천8백52만3천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9%가 늘어났다. 특히 8월중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16.2%가 증가한 4백50만4천톤을 기록했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을 보면, 산

업부문이 전년동기보다 7.2%, 수송부문 21.4%가 각각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은 2.7%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발전부문은 石油가 29.7% 감소한데 비해 원자력과 유연탄은 70.

8%, 9.9%가 각각 늘어났다.

한편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전년 동기보다 1.5%포인트 높아진 80.5%를 나타냈으나, 기간중 에너지 수입금액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25.6%가 감소한 31억3천7백만달러에 그쳤다.

### LNG 5만7천톤

11월초 平澤항에 첫 입항

韓國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이행을 위해 韓國가스公社 협상단과 인도네시아측 페르타미나社 대표단은 지난 9월 23일 자카르타에서 협상을 가졌다.

5일간 계속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LNG도입가격 및 LNG船 입항 시기등 LNG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벌여 우선 오는 11월초 잠정적인 가격으로 5만7천여톤(1카고)의 LNG를 살고 첫 LNG船이 平澤항에 입항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지난 83년에 체결한 LNG도입계약서상의「실현된 原油수출가격」(REP, Realized export price)에 연동시켜 LNG도입가격을 결정키로 했는데,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정부고시가격(GSP)를 주장하는 페르타미나社와 실제 원유수출가격을 주장하는 韓國가스公社의 견해차이로 가격타결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협상끝에 일단 REP의 개념을 실세가격을 반영하는 원칙에 의견을 접근하고, 임시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그 첫 카고를 받도록 하고,

## 原油유전스수입기간 환원건의 石油協會, 수입보증금 징수면제도 요청

정유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原油의 유전스수입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原油수입시 10%의 수입보증금을 징수키로 결정한데 대해 유전스수입기간을 120일로 환원시키고, 수입보증금징구를 면제해 줄 것을 지난 10월 7일 관계당국에 거듭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회장 崔班圭)는 이 건의에서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정유사들의 유전스를 통한 운영자금조달액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정부의 高油價유지정책과 석유사업기금의 대폭적인 인상 및 조기징수등으로 86년중 정유사들은 모두 1천6백80억원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스수입기간이 단축되는 87년부터는 2천20억원의 추가자금부담을 초래하고, 또 수입보증금 10% 징구조치로 1천 1백80억원의 자금부담을 가져와 정유업계의 자금부족은 產業銀行 외화표시자금융자와 기금납부기일 조치후에 다시 4천8백8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이러한 자금부담은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가능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서 더욱기 정부가 통화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 자체노력에 의한 차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원유구입 자금조달의 차질로 국내유류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심각한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중에 모두 1천2백80억원의 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을 차입하여 사용중이다.

추후 가격협상이 타결된 후에 정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의 LNG 가격협상은 지난 85년 12월 韓國·인도네시아자원협력위원회때 공식 제의된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실무협상이 있었다.

### 石油協會주최 제5회회원사바둑대회 단체우승 : 油公, 준우승 : 湖油

석유협회는 창립6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9월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회원사 친선바둑대회(사진)를 개최했다.

명의 棋士들이 참가, 4개조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날 대국에서 영예의 종합우승은 油公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湖南精油, 3위는 極東石油가 차지했다.

개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A 조

▲ 우승 : 李廷禹(油公)

▲ 준우승 : 金濟和(極東石油)

◇ B 조

▲ 우승 : 禹成浩(油公)

▲ 준우승 : 文雲龍(極東石油)

◇ C 조

▲ 우승 : 朴魯琴(油公)

▲ 준우승 : 許慶茂(湖南精油)

◇ D 조

▲ 우승 : 權雄憲(湖南精油)

▲ 준우승 : 鄭泰胤(油公)

### 油公, KS표시허가 추가획득 윤활유등 4개품목

油公은 지난 9월 17일부로 매연기 관용 윤활유, 기어유, 냉동기유, 절상유제등 4개품목 6개종의 윤활유제품에 대한 KS표시허가를 획득하였다.

5개 회원사 및 협회에서 모두 24



윤활유영업부에서는 86년 1월부터 업무추진팀을 구성하여 KS표시허가 획득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KS표시 허가 획득으로 사전검사 수수료 절감, 긴급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대수요처의 입찰자격 획득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油公이 보유하고 있는 윤활유제품 KS표시허가획득품목은 5개품목에 13종으로 늘어났다.

### 油公, 공장에 최신경비시설 적외선과 E-FLEX등 설치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9월 6일 조규향 인사총무담당전무이사, 윤대우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식 과학화 경비장비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된 과학화 경비장비는 범아실업공사와 범아기계경비에서 약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장 주요지역에 적외선과 E-FLEX를 설치, 불순분자 침투시 경광등과 알람으로 조기경보와 아울러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 조작으로 화상을 통해 이를 추적 할 수 있게 되었다.

### 油公, 공장문서 M / F교육 문서정리방법등 설명

油公 공장은 지난 9월 5일 공장본관 대회의실에서 각부서 문서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문서 마이크로필름화(M/F)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촬영의뢰서 작성, 색인표 정리등 문서정리방법과 M/F 시스템설명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사무개선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油公, LPG판매요원 교육 본사 및 지사요원 40여명

油公 LPG판매부는 판매요원의 관리역량신장을 위한 기술교육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과정으로 충남 유성에서 실시하였다.

본사 관련부서와 전국 각 지사 엘피지 판매요원등 4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안전점검요령, LNG 및 도시가스현황, 충전소현대화, 정부의 가스보급정책 등을 논의, 이에 대한 지식을 함양토록 하였다.

### 油公, 공장 친선탁구대회 최강자에 윤기관 사우

油公 공장 탁구동우회(회장: 최병무과장)는 지난 9월 12일 울산시내 수암탁구장에서 제7회 친선탁구대회를 갖고 동우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번 대회에서 A조 최대의 이벤트인 준준결승에서 전산과의 김동원 사우가 회계과 최대림 사우를 이질라버로 2:0으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 각조별 우승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S 조: 윤기관 ● A 조: 김동원
- B 조: 이동재 ● C 조: 심은숙
- 노장조: 안을학

### 油公, 본사 부문대항축구대회 인사총무부문 우승

油公 축구동호회(회장: 조현제 부장)는 지난 9월 27일 경기도 광명중·고등학교 축구장에서 제4회 본사

부문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전년도 우승팀인 재무부문을 비롯하여 총 8개 부문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부·과장급 간부직원들과 사원들이 함께 선수로 출전하여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인사총무부문이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 입상팀 및 개인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승: 인사총무부문

▲ 준우승: 재무부문

▲ 3위: 사장실, 엔지니어링 부문

### 油公, 본사·공장 친선야구경기 공장야구회 9:7로 승리

油公 본사 야구동우회(회장: 김관치부장)와 공장 야구동우회(회장: 박주훈실장)는 지난 9월 14일 공장내 야구장에서 제3회 친선교환 야구경기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회원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공장동우회가 9:7로 승리하였다.

### 油公, 블우이웃 위문활동 13개단체에 생필품 전달

油公 본사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5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산 성심동원과 남산 군경유자녀원을 방문, 총 3백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계자 및 고아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공장도 또한 추석을 맞아 9월 15

일과 16일 양일간 울산 양육원, 양로원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湖油공장 내외인사 방문맞아 국회의원 및 美주지사등

湖油 여천공장에는 국회 이찬혁 보사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보사분과 위원단을 비롯하여 美미주리 주지사 일행의 방문이 잇달았다.

광양만 오염실태조사차 지난 9월 29일 현지에 내려온 보사분과 위원단은 임원진의 공장 전반에 걸친 현황 설명을 들은 후에 현장을 돌아본 뒤 장구미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라남도와 미국 미주리주간에 상호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식에 참석했던 John Ashcroft 미국 미주리 주지사 일행이 25일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임원진으로부터 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등의 문화영화를 시청하였다.

### 湖油, PC교육 본격화 사무 및 문서교신에 이용확대

湖油는 사무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최근에 퍼스널 컴퓨터(PC)를 증가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산운영부 주관으로 각 부에서 선발된 100여명을 대상으로 퍼스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대상자를 4개조로 나누어 5일간씩 사무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이번 교육은 PC의 명령어 사용요령(DOS), 한글문서 처리요령(KWP), 각종의 계산표 작성요령(MP), 자료의 목록구성 및 사용요령(MF), 그리고 각종의 도표 사용요령(M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시험운용중인 전자우편함제도(EMS)의 개발로 본사와 공장간의 텔레스, 우편 등의 문서교신 업무에 PC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업무가 더욱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湖油 직원 해외연수 류호일사원 R & D 부문에

湖油는 R & D 부문의 고학력 인력 확보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로 류호일(제품·신기술연구실) 사우를 미국에 보내 박사과정을 이수토록 하였다.

류 사우는 3년동안 유타(Utah)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되며, 학위취득 후 회사에 돌아와 근무하게 된다.

### 湖油 천목회 모임가져 낚시·보울링·야구반등

湖油 본사 낚시반(반장 박종철 부장)은 지난 9월 6일, 7일 1박2일 일정으로 충주댐의 월악교 방면으로 회원 38명이 출조하여 모처럼의 밤낚시를 즐겼다.

또한 본사 보울링반(반장 김상배 부장)도 지난 9월 3일 압구정동에 위치한 쌍봉보울링장에서 약 2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

을 가졌다.

한편 대내외 경기 등으로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 야구반(반장: 최병기 과장)은 자매회사인 여수에너지팀과 여수공업고등학교 교직원팀을 초청하여 지난 9월 27일 여도중학교 운동장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 湖油, 이차장 감사패 받아 철도의 날 맞아

湖油 수송부 이홍환차장은 지난 9월 18일 철도창설 제87주년을 기념하는 ‘철도의 날’을 맞아 최기덕철도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차장은 그동안 철도청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 유류제품 안전수송은 물론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날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이다.

### 湖油, 신입사원 통신교육 46명대상 3개월간

湖油는 사원들에게 조직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인식시키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방법을 습득케 함은 물론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86년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85년 1월 8일 이후 입사한 대졸신입사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진행은 다른 통신교육과 마찬가지로 매월 한 과목씩 교재를 자습하고 리포트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로부

터 평가를 받는 절차로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 京仁, 이상민이사 해외출장

亞·太 石油회의 참가

京仁에너지는 9월 16, 17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 석유회의에 참가한 후, 말레이지아를 방문하여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사사와 원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4일 귀국하였다.

## 京仁, 공장 정기보수

시설교체로 효율성 제고

京仁에너지는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유공장 추계 정기보수를 실시하였다. 가열로의 내화물 교체와 축매교체등을 실시한 이번 정기보수 기간중에는 상압중류탑등 중류탑 5기의 내부를 기존의 Tray 방식에서 Packing방식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운전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京仁, 원유도입 500항차기념식

10월 17일内外인사 참석하에

京仁에너지는 지난 10월 17일 원유도입 500항차 기념식을 가졌다. 동사 원유도입과 관련한 기관, 회사의 직원을 초빙하여 동사 해상부두 및 공장 사택 식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그간의 원유도입관련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더 계속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京仁, 그룹창립 34주년기념식

근속 및 모범사원 표창도

京仁에너지는 그룹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10월 8일 본사와 공장에서 각각 창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

金昇淵 그룹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성숙된 그룹의 일원으로서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 이날 행사에서 崔珏圭사장은 장기근속자 및 모범사원들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회사와 그룹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京仁, 여직원 꽃꽂이강습회

정서함양 및 분위기 개선 기대

京仁에너지는 본사 여직원의 정서함양 및 본사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년 예정으로 본사 여직원 꽃꽂이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본사 여직원을 3개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꽃꽂이 강습회를 실시하며, 여기서 실습한 꽃꽂이를 각 임원실 및 부서별로 배치하여 여직원의 정서함양 및 사무실의 근무분위기도 한층 밝게 되었다.

## 京仁공장 블우이웃돕기

추석절 맞아 라면등 전달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한가위를 맞아 10월 17일 인근지역 영세보호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원창동 사무소에 빙그레 라면 기념품셋트를 전달하였다.

## 雙龍, 영업사원 기술교육

대리점등 총73명 수강

雙龍精油는 영업사원에 대한 86년도 자체기술교육을 지난 9월 24, 25일 양일간 본사·영업소 과장급이하 전원과 직영대리점 부장급이하 전원을 대상으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박장로 품질관리실장 주재로 우리제품의 특성과 규격, 클레임 대처방안, 공정개요등에 대한 기본 지식함양 목적으로 이틀동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개조로 나뉘어 총 73명이 수강했다.

## 雙龍, 공장테니스대회 개최

박춘득·김태욱조 우승

雙龍精油 온산공장 테니스회(회장 김승정 정유생산부장)는 9월 14일 울산시내 종하테니스장서 회원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배쟁탈 제7회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A조 우승은 박춘득·김태욱조, B조 우승은 방효근·김관홍조, C조 우승은 백만주·최복근조가 각각 차지했다.

## 雙龍, 온산공장 TV에 보도

완벽한 폐수처리실태등

雙龍精油 온산공장이 지난 9월 29일 아침 MBC-TV의 「여기는 MB C」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다. MB C-TV는 이날 보도에서 “쌍용정유는 최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공장 폐수를 완벽하게 정화함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기업본연의 자세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폐수가 정화된 물에 매일처럼 날아오는 갈매기떼와 공원처럼 깨끗한 주변환경을 비롯, 5대째 서식하고 있는 하얀 오리떼를 그림과 함께 보여주면서 “쌍용정유 온산공장의 폐수처리장은 오리의 낙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雙龍, 제9회 QC 발표회 개최 거북이·넝쿨연합분임조 금상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지난 9월 16일 제9회 사내품질관리분임조 활동 발표대회를 개최, 거북이(정유 1과)·넝쿨(정비 1과) 연합분임조가 금상을 차지했다.

온산공장소속 9개분임조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발표대회는 이선종 공장장의 대회 인사말에 이어 사례발표에 들어가 오후 6시30분 시상식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금상을 차지한 거북이·넝쿨 분임조는 중질유 공정지역의 방출스팀 회수를 테마로 지난 1년동안 활동해온 결과를 발표했었다. 은상은 윤활유 2과 무지개분임조가 발표한 ‘탈납공정 폐가스로부터 솔벤트회수’에 돌아가고, 동상은 저유과의 탱크분임조와 정비 2과의 꿀벌연합분임조가 발표한 ‘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주어졌다.

### 雙龍, 이란선수단 자매지원 아시안게임중 각종경기 응원

雙龍精油는 제10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이란선수단의 자매지원단

간사회사를 맡아 대회기간중 이란팀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친선강화에 기여했다.

雙龍精油는 임직원이 지난 9월 15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167명의 이란선수단을 맞아 열렬한 환영과 함께 선전분투를 당부하는 한편, 이란팀이

경기를 펼치는 운동장마다 단체 입장하여 응원을 펼쳤다.

이란 대표팀은 9개 종목에 13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금메달 6, 은메달 6, 동메달 10개를 차지하여 종합 4위를 마크했다.

## 極東石油·BP 합작회사 설립 瑞山정유공장·중질유분해시설 참여

極東石油 張洪宣 사장은 지난 9월 25일 英國 런던에서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BP사와 자본참여 및 기술인력 투입에 따른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설 합작회사는 極東 측 60%, BP 측 40%의 지분을 갖고 운영되며 특히 BP측은 동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440억원(할증금 172억원 포함)을 지불하게 되었다.

極東石油은 현재 瑞山정유공장을 건설중인데, 이 공장은 국내 최초로 Hydrocracker, Delayed Coker 등 고도화된 정제시설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의 원활한 시운전 및 운전을 위하여는 선진기술 및 경험이 크게 도움될 것이며, BP社와의 합작은 재무구조 개선 및 막대한 투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極東石油의 張洪宣사장과 英國 BP社의 국제담당사장 제임스 로스씨가 25일 「런던」에서 합작투자계약에 서명하고 있다.

## 極東, 창립 26주년 기념식 근속사원에 표창도

極東石油는 지난 10월 2일 회사창립 26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다. 기념식후 장기근속자 부부는 회사의 금중역과 더불어 오찬을 같이 하였다.

또한 釜山공장은 창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월 2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테니스, 탁구등 각종 경기대회를 갖고 10월 18일에는 별도의 창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極東, 공장 여직원행사 가져 교양강좌 및 체육대회

極東石油 부산공장에서는 지난 9월 28일 부산지구 여직원 69명을 대상으로 직장여성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좌에는 李宇一 부사장의 '여사원의 자세'에 관한 특강을 비롯하여 외부강사의 '여사원 업무의 기본' 등 여러 강좌가 열렸다.

또한 교양강좌후 공장 인근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공장 빛무리회와 지사 한아름회 여직원간에 피구와 풋베이스볼 2종목에 대한 경기를 가졌다. 빛무리회가 한아름회를 물리치고 제1회 여직원 친선체육대회의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 석유협회직원 벼베기 지원 10월 13일 수색 상암동에서

석유협회 직원들은 지난 10월 13일 서울시 水色 상암동 논에서 농촌벼베기를 지원했다. ☐

## 석유협회 창립 6주년 기념식 5년근속사원 및 유공사원 표창

대한석유협회(회장 崔玗圭)는 창립 6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沈載萬 총무과장 등 5년 근속사원 4명과 金演會 기획과장 등 유공사원 4명에게 각각 근속상과 표창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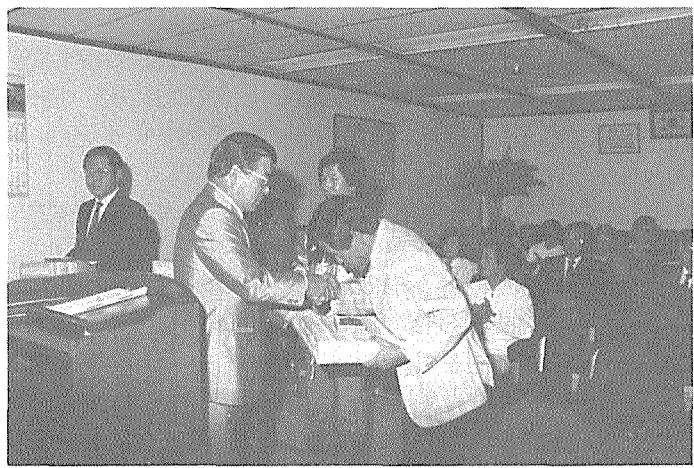
劉時鍾부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반적으로 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빠지기 쉬운 병폐는 업무능률의 비효율성,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관료성』이라고 지적하고, 회원들의 신뢰받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회운영의 내실화와 업무의 전문화 및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5년 근속사원

- ▲沈載萬(업무부 총무과장)
- ▲金鍾七(기획부 조사과장)
- ▲尹正雄(업무부 업무과장)
- ▲姜聲浩(업무부 총무과)

### ◇ 유공사원

- ▲金演會(기획부 기획과장)
- ▲沈載萬(업무부 총무과장)
- ▲許仁旭(업무부 업무과대리)
- ▲劉慶淑(업무부 총무과)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